

와/과, 하고, (이)랑

나열·동반 — ~와/과, ~하고

두 명사를 잇거나,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. 뜻은 같고 격식의 정도만 다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형태	말투	예
과 — 받침 뒤	격식, 문어	빵과 우유
와 — 모음 뒤	격식, 문어	우유와 빵
하고	중립, 구어	친구하고 갔어요
이랑 — 받침 뒤	비격식	밥이랑 김치
랑 — 모음 뒤	비격식	커피랑 빵
같이 / 함께와 함께	~와 함께	친구하고 같이 갔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세 가지 모두 명사를 이어 줍니다: 빵과 우유, 빵하고 우유, 빵이랑 우유는 모두 ‘빵과 우유’라는 뜻입니다. 또한 어떤 행동을 함께하는 상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: 친구하고 영화를 봤어요.

무엇을 고를지는 뜻이 아니라 말투(격식)의 문제입니다. 와/과는 문어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며, 셋 중 유일하게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. 하고는 중간 정도로, 거의 어디에서나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. (이)랑은 편하고 친근한 말투로, 친구 사이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보고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
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이 조사들은 명사만 이어 줍니다. 두 절을 이으려면 -고를 써야 합니다. 또 ‘~와 함께’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보통 같이나 함께를 덧붙입니다: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.

■ 예문

- 1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.
- 2 커피랑 케이크 주세요.
- 3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요.
- 4 동생이랑 영화를 봤어요.
- 5 빵하고 우유를 샀어요.
- 6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.

■ 비교

-고
명사를 이을 때는 이 조사들을, 절을 이을 때는 -고를 씁니다. 영어의 and는 두 경우를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학습자가 잘못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빵하고 우유를 샀어요. (빵과 우유를 샀다) / 빵을 사고 집에 갔어요. (빵을 산 뒤 집에 갔다)

말투
같은 문장을 세 가지 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.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조사를 고르세요.
친구와 갔습니다. (보고·발표) / 친구하고 갔어요. (일상) / 친구랑 갔어. (친구 사이)

(으)로
둘 다 ‘~와 함께/~로’처럼 옮겨질 수 있지만 뜻이 다릅니다. 이 조사들은 함께하는 상대를, (으)로는 도구나 재료를 나타냅니다.
친구하고 만들었어요. (친구와 함께 만들었다) / 손으로 만들었어요. (손을 써서 만들었다)

■ 주의

- ✗ 빵을 사고 우유를 샀어요. — ‘빵과 우유’라는 뜻으로 쓴 경우
○ 빵하고 우유를 샀어요.
-고는 두 동작을 잇습니다. 한 동작 안에서 두 명사를 이으려면 와/과, 하고, (이)랑을 쓰세요.
- ✗ 빵와 우유
○ 빵과 우유
와/과는 이 중 유일하게 받침에 따라 형태가 바뀌며, 규칙이 이/가와 반대입니다. 받침 뒤에는 과, 모음 뒤에는 와를 씁니다.
- ✗ 보고서를 친구랑 썼습니다.
○ 보고서를 친구와 썼습니다.
(이)랑은 비격식 표현이라 격식체 어미 -습니다와 어울리지 않습니다. 문장 전체의 말투를 일관되게 맞추세요.